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해·황해연안의 해변 표착물조사 (도야마현)

1. 목적

본 조사는 ①계속적으로 인공물에 따른 해변의 오염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대책,폐기물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 ②연안지역 주민의 조사 참가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바다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육성한다」라는 공통의식을 배양해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적인 해양환경 문제로서 주목되고 있고 환동해지역 연안에 표착하고 있는 표착물량을 통일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프로젝트의 조사결과는 일본정부나 국제기관에 있어서 표착물대책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2. 사업내용

(1) 실시시기 2008년 4월~2009년 3월

(2) 실시장소 동해·황해연안

(3) 실시방법

a 조사주체

자자체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실시

b 조사횟수

각지점에 따라 연간 1회 또는 연간 4회

c 조사방법

- 해수욕장 등에 파도가 밀려오는 쪽에서 육지방향으로 연속적으로 3구획 정도의 조사구획 (1구획 10m×10m) 을 설정한다.
- 설정된 조사구획 내의 표착물을 전부 모아서 다음의 8종류로 분류하고 중량 및 개수를 측정한다.

① 플라스틱	② 고무류	③ 발포스틸렌류	④ 종이류
⑤ 형질류	⑥ 유리·도자기류	⑦ 금속류	⑧ 그외 인공물

d 조사결과

자자체에서 본 현에 제출한 조사결과는 (재) 환일본해 환경협력센터에서 정리해서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4) 참가지자체

동북아시아 지역 지자체연합회원과 그외 지자체를 포함한 22 지자체에서 실시예정

일 본 : 홋카이도,아오모리현,야마가타현,니가타현,도야마현,이시카와현, 교토부,효고현,
돗토리현,시마네현,야마구치현,후쿠오카현,사가현,나가사키현

러시아 : 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방,사할린주

한 국 : 강원도,경상북도

중 국 : 하북성,강소성

3. 2007 년도 사업결과

(1) 참가지자체

동북아시아지역 지자체연합 회원과 그 외 지자체를 포함한 26 지자체 실시

(2) 실시결과

현재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빠른 시일내에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

【조사활동 모습】



일 본



중 국



한 국



러시아